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해야할 때입니다. [Haggai 1:1-11]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 다리오왕 이년 유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5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찌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릴찌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찌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찌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찌니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10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일 미루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학개는 기원전 520년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잘못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뒤야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1, 유다의 문제: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이들은 성전재건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집을 재건축에만 열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교본문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개 1:4). 그들이 성전건축을 뒤로 미룬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여유가 없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길 원하셨으며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궁핍함은 그들의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의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이 어렵고 궁핍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성전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성전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재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본문 8절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1:8). 우리는 성전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지 때문에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3, 우리의 우선순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그 분을 바르게 섬긴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며 다른 일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은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 몇 번째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의 교회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길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분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